

【우리 시의 향기】

# 바람의 상징성

- 「蓮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

---

김옥순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섬섬하게,  
그러나  
아조 섬섬치는 말고  
좀 섬섬한 듯만 하게,

이별이게,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

蓮꽃  
만나러 가는  
바람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

엇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

(「蓮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정주(徐廷柱, 1915~2000)의 시 「蓮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에 나타난 바람의 상징성을 생각해 보면 1) 행동, 사건의 동기, 2) 삶의 약동성과 그에 관련된 환희, 3) 에로티시즘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무슨 바람이 불어 예까지 왔나?”하는 것이 첫 번째 예라면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의 예이다. 그리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세 번째와 관련된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볼 때 바람은 야성적이고 충동적인 인간의 힘을 상징한다.<sup>1)</sup> 이런 자유와 불구속을 상징하는 바람이 연꽃과 만난다는 것은 어떤 맥락인가?

흔히 식물과의 만남에서 바람은 파괴적이고 죽음을 몰고 오는 존재로 상징된다. 향가, ‘제망매가’(祭亡妹歌: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며 부른 노래’란 뜻)에 나타나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 잎이 떨어지듯 누이의 생명도 다한 것을 노래한 향가의 ‘바람’이나, 윤희동의 ‘서시’(序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에서의 잎새에 이는 바람은 인정머리 없는 가해자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시에서의 바람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나타난다. 즉 방약무인(傍若無人)한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추스리려고 애쓰는 피해자처럼

1) 김열규. 「바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302쪽.

등장하고 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당하고 돌아오는 자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여 준다. 그것은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화자(話者)의 어조에서 짙게 묻어 있고, 부정적인 어법으로 이별의 슬픔을 억누르고 다스리려는 의도를 계속 나타내는 데서도 알 수 있다. 1, 2연에서 ‘그러나’, ‘-지 말고’와 같은 부정적인 어법을 사용하면서 시적 화자의 섬세한 감정이나 이별이 몰고 온 슬픔을 계속 다독거리려고 노력한다. 1연의 섬세함은 단순한 섬세함이 아니라 ‘아조 섬세치는 말고/ 좀 섬세한 듯만 한’ 섬세한 여과의 단계를 거친 섬세함이다. 2연의 이별도 “이별이게, /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로 과격한 단숨의 이별이 아니라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그런 전제와 가설을 복선처럼 깎아 이별의 미학을 제시한다. 이런 복잡하고 섬세한 이별의 미학을 통해 이 이별이 가져온 엄청난 슬픔에 허물어지려는 누군가(자신)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절박함도 느껴진다.

시적 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섬세한 듯만 하게’,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게’의 어법에서 나타나듯이 ‘듯만’, ‘-하기로 하는’과 같은 모호한 비유적 어미와 종결형을 제시하면서 누군가가 겪을 이별의 섬세함을, 그 슬픔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몸짓은 아직 시적 화자와 밀착되지 않은 어떤 거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1, 2연에는 누가 섬세한지, 무엇을 섬세해 하는지, 그리고 누가 누구와 이별하는 것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3, 4연에 와서야 비로소 바람이 연꽃을 만났다가 헤어진 것임을, 아니 바람이 연꽃을 만났다가 헤어진 일에 비유될 수 있음을 제시할 뿐이다. 단순한 만남과 이별이 아닌 섬세하고 복잡 미묘한 단계를 비유적으로 제시한 섬세함과 이별인 것이다.

3연에 오면 앞에서의 허물어지는 존재를 ‘바람’에 비유하고 있다. 흔히 바람이 연꽃을 만나고 간다고 함은 찰나적인 만남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은 바람의 속성 때문일 것이다. 어느 한 순간도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바람의 그 속성은 자못 유전(流轉)하는 우리의 인생과 비견될 수 있겠다. 이런 기약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허무한 존재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또 한 번 이별에

절망하는 자신을 달래고 있다.

연꽃은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을 상징하기도 하고 연꽃의 생김새가 축을 중심으로 도는 바퀴살과 비슷하여 윤회의 가르침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연꽃'은 오랜 수행 끝에 변뇌의 바다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의 모습에 비유되기도 하고,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정토'를 상징한다.<sup>2)</sup> 연꽃이 그런 극락 세계 또는 생명 탄생의 상징이라면 연꽃과의 이별은 자신이 허물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허물어지려 하는 자신을 추스리려고 '좀 섭섭한 듯만 하계'라든가 '아주 영 이별은 말고'와 같은 완화하는 부정의 어법을 동원한 것일까? 더욱 완화하는 어법으로 '영 이별은 말고'가 등장하지만 그 뒤에 나타난 희망은 '어디 내생에서라도 만나기로 하는'으로 제시되어 결국 이승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절망적인 희망임을 다시 한번 각인(刻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만남은 이생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고 윤회(輪廻)의 사슬로 이어져야만 만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생에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의 끝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죽음뿐일 것이다. 어떤 조건도 죽음만큼 완벽하게 생명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부모, 가족, 친구, 연인, 모든 존재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돌아올 때(죽어 영이별할 때)의 슬픔을 생각해 보라.

따라서 바람은 연꽃을 희롱하러 가는 즐거운 몸짓의 바람이 아니라 연꽃을 만나고 가는 이별의 바람이고, 만남의 기쁨을 간직하고 금방 헤어지는 바람이 아니라 한 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 (만남이 잊혀져 갈 시간) 같은 몸짓을 취하도록 자신에게 요구하면서 허물어짐의 바닥을 경계한다.

그러나 화자가 단순히 감정적인 허무러짐만을 경계한 것일까? 바람이 연꽃을 만나고 오는 사건은 단계별로 걸러서 세련된 이별의 미학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거쳐가야 할 길에 대한 질문을 보여 주는 듯하다. 3, 4연에서 바람의 길은 '만남의 길 → 이별하고 돌아가는 길 → 한 두 철

2) 강우방, 조희웅, 「연꽃」, 앞책, 447쪽.

전 이별하고 돌아가는 길'로 점점 기쁨이 아닌 엄청난 슬픔을, 엄청난 슬픔보다는 절제되고 잊혀져 가는 슬픔의 자세를 보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슬픔도 폭풍우같은 슬픔이 아닌 철 지난 바람처럼 안으로 잦아드는 조용한 미풍같은 슬픔으로 승화시킨 이별을 권고하고 있다.

바람이 연꽃을 만나는 시간은 얼마였을까? 아마 잠깐이었을 것이다. 바람이 연꽃을 만나러 가고 오는 그 긴 시간에서의 잠깐의 만남이라면 그것을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바람이란 원래 한 순간도 가만히 머물 수 없는 존재니까. 바람이 연꽃과 만나는 그 순간을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세대에서 복락을 누리는 짧은 한평생일 수 있다. 사람의 한평생을 유추적 비유로 바람에 비유한다면, 이승의 공간은 연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바람 ≡ 사람의 한평생

|                    |

연꽃 ≡ 이승

그 바람이 한두 철 전 바람으로, 그리고 수천 겁(?)이 지난 내생에서의 바람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곡예를 권유한다.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일까? '바람'은 한 순간도 한 곳에 머물 수 없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허무한 속성을 띠고 있다. 바람의 길을 다시 한 번 사람의 한평생으로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순간의 바람        ≡ 한평생

한두 철 전 바람 ≡ 몇 세대

내생의 바람        ≡ 수백 수천 겁

이 바람이 잠깐 연꽃을 만나는 이승에서의 행복은 '그 순간'의 수천 겁인 '내생'이 와야만 다시 만날 수 있다. 것처럼 만남의 덧없음, 생명의 덧없음은 형체를 허물어뜨릴 만큼 비탄과 이별의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시는 비유의 조건 중에서 '표현되는 것'인 '바람'과 '연꽃'의 만남과 이별을 보여주지만 그것들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면서 시적 화자와의 거리를 그대로 두고 있다. 여기서 모든 존재가 만나면 헤어져야 한다는[會者定離] 불가(佛家)의 가르침이 느껴지며 생명 있는 존재가 안고 있는 그 메울 수 없는 심연을 보여 주고 있다.